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 인터뷰
“새 성장 동력 확보에 힘 쏟을 것”

판교 알파돔시티 투자 가치는
행복한 투자 vs 불행한 투자
경매로 무인도 사들이기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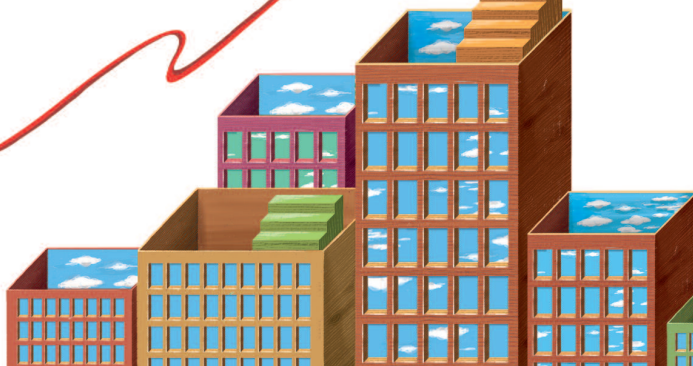
퐁퐁 튀는 경제통 되기

‘M&A 지존’

김앤장과 CS의 비밀

(크레디트스위스)

팔도가 프로야구 후원하는 진짜 이유는
2분기 이후 IT 모멘텀은 무엇이 될까
‘세계경제의 적’ 좀비론 확산되나



한국경제신문

값 4,000원



9 771228 444006
ISSN 1228-4440

러시아 대륙붕 자원 개발, 닫힌 문 다시 열리나 민간 회사 참여 허용 가능성 높아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변호사

러시아의 대륙붕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은 약 1000억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러시아 지하자원법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하고 러시아 수역에서의 개발 경험이 5년을 초과하는 개발회사(사업자)만 대륙붕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지하자원법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오직 두 개의 국영 회사인 로스네프티와 가스프롬 뿐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이들 두 개 회사에만 대륙붕 프로젝트 개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2030 대륙붕 개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회사들의 재정 및 기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러시아 정부의 '2030 대륙붕 개발 계획'은 대륙붕 지역에서 2030년까지 4000만~8000만 톤의 석유 및 1900억 m³의 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대륙붕 지역 개발을 위해 최근 열린 러시아 정부의 대륙붕개발촉진회의에서 대륙붕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민간 회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하면서 몇 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에서 밝힌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대륙붕 개발을 위한 특별조세촉진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신규 대륙붕 프로젝트의 수출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특히 북극 지역 고난위도 프로젝트는 광물 생산세율을 5%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프로젝트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모든 신규 대륙붕 프로젝트는 재산세와 부가가치세(러시아에서 생산하지 않는 특수 장비 수입에 한함)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러한 조세 감면 기간은 해당 자원의 상업 생산 시점으로부터 15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의 평가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 조건 하에서 대륙붕 개발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액은 30년에 걸쳐 약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신규 일자리도 약 40만 개 이상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전체 산업에서 광범위한 파생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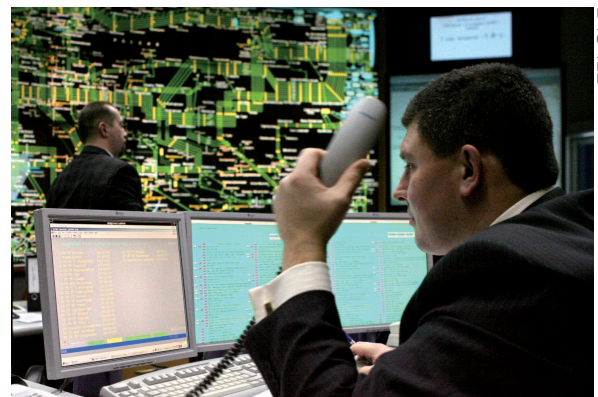
한편 대륙붕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고난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 투자가 필요한데, 러

시아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및 국영 회사만으로는 목표 수준의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법률의 요건을 완화해 다수의 외국 투자자의 자금과 기술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러시아 정부는 민간 회사들의 대륙붕 개발 참여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대륙붕 석유·가스 매장량 1000억 톤

러시아 정부의 의도를 정리해 보면,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자원 개발과 관련해 보다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미지를 만들되, 투자 개발 지역은 자원 개발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내륙 지역보다 대규모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대륙붕 지역을 선정해 외국의 선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른 산업 분야의 발전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붕 개발 참여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단기간에 한국 공기업들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직접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준이 완화되면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탐사 생산 활동 증가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 조선사들이나 관련 기자재 생산 기업들에는 추가적인 사업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석유·가스

러시아 정부는 대륙붕 자원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진은 석유 대기업 가스프롬 본사 종합통제실.